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동요인 분석

김혜원*

I. 서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1963년 37%에 불과했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 50%에 도달하였다. 추세적으로 증가를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전에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이후 외환위기의 충격과 함께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외견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다지 인상적인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까지 30여년 사이에 40%에서 50%로 늘어났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1960년에 42%에서 1973년에 이미 53%로 10여년 사이에 1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에 39% 수준에서 20년 사이에 30%포인트가 증가하여 1980년에는 69%가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좀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은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20대 여성의 참가율 증가에 주로 힘입은 것이고 3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김재호, 2002: 10). 주목할 만한 현상은 3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상태는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M자형 특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두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왜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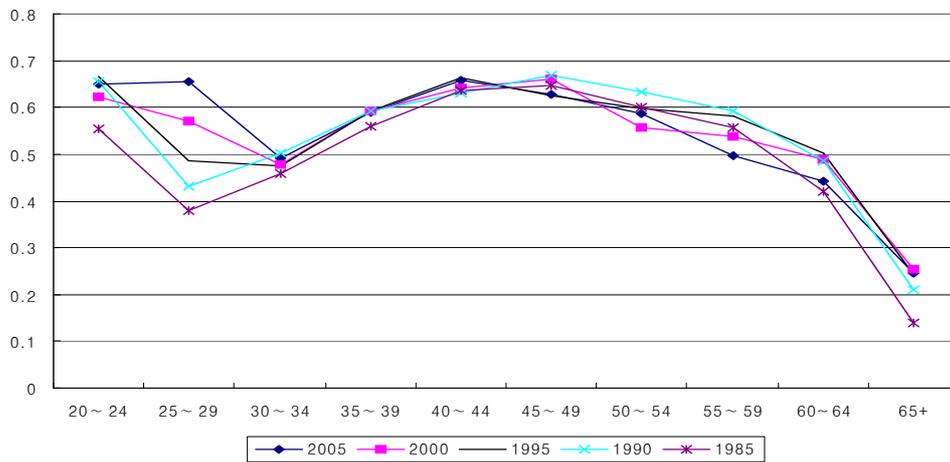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참가율의 정체상태가 유지되는가라는 것이며, 두 번째 의문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성장 등의 여성의 가족주기적 상태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어떤 변화가 야기되며 학력별 차이는 어떠한가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친착한 연구는 황수경(2003)이 대표적이다. 황수경(2003)은 30대 초반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많은 기존 실증 연구들 역시 결혼 및 출산, 양육의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30대 초반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여성의 참가율과 미혼여성의 참가율의 가중평균이며 가중치는 미혼과 기혼의 비율이다. 지난 20여 년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향배는 기혼여성의 참가율과 미혼여성의 참가율의 변화 그리고 30대 초반 연령대의 미혼자의 비율의 변화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M자형 곡선을 만들어내는 핵심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참가율의 시계열적 움직임이 무엇에 의해 주도되는지 명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김지경·조유현(2003), 김지경(2004), 김우영(2003), 황수경(2003, 2004) 등에서 분석된 바 있다. 김지경·조유현(2003), 김지경(2004), 김우영(2003)의 연구는 결혼이나 첫 출산이라는 개별 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황수경(2003, 2004)의 경우 가족주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2001년, 2002년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횡단면 분석을 통해 경제활동상태만을 검토한 점에서 이 글에서 시도되는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분석과는 차이를 갖는다.

[그림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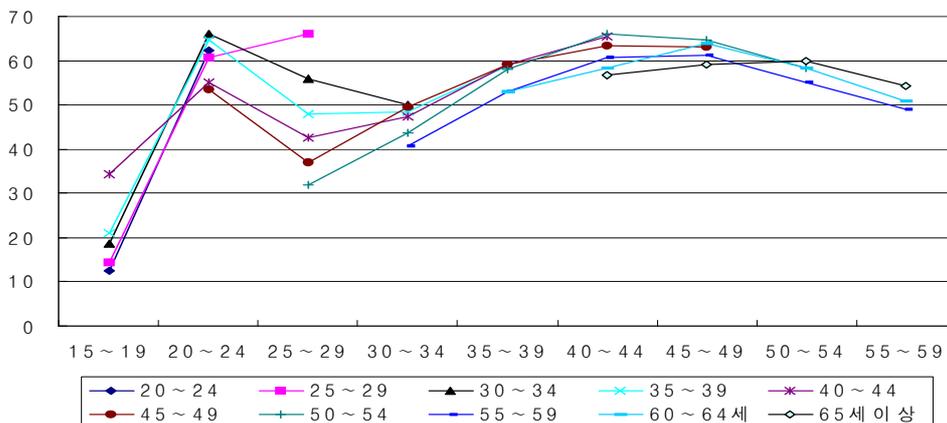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분해

[그림 2]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선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각 코호트들이 현재 연령대에 도달하기까지 과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40~44의 선은 2005년 현재 40~44세인 여성, 즉 1960~64년경에 태어난 여성을 의미한다.

첫째, 코호트별로 보아도 여전히 M자형 경제활동참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5년 현재 40~54세 연령대에 속한 여성, 즉 1950~64년경에 태어난 여성들의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2005년 현재 55세 이상인 여성)에 비해 30대 후반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코호트의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1965년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1965년 이후 출생코호트(2005년 현재 30대 후반 이하인 여성)가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코호트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의 그것이다. 1950~54년 출생코호트는 3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지만 빠르게 증가하여 1975~79년 출생코호트는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75~79년 출생코호트는 20대 초반에 비해 20대 후반에 더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림 2] 코호트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보육의 사건(event)이다. 대부분의 코호트들이 처음에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뒤 갑자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다시 이후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가족주기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의 코호트들은 20대 초반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20대 후반의 낮은 참가율, 30대 초반으로 이행하면서 참가율의 상승이라는 패턴을 보이는 데 비해, 최근의 코호트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행하면서 참가율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1970~74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오히려 30대 초반으로 이행하면서 참가율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근 코호트의 참가율 양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황수경(2003)에서는 최근의 코호트들이 과거 코호트에 비해 결혼,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황수경(2003)에 따르면 1980년대의 경우 20대 초반 높은 참가율을 보인 세대가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5년 후에 상당수가 복귀하는 데 비해, 1990년대에는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세대가 5년 후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¹⁾

이와 달리 이 글에서는 최근 코호트의 경제활동참가율 양태가 결혼 연령의 변화 및 초산 연령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해 결혼 및 초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중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과 영유아 양육의 부담이 기혼여성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경제활동참가에 동일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미혼자의 비율 증가는 20대 후반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출산 및 양육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초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 증가의 추세를 상쇄하는 하락 압력에 의해 정체되게 된다.

결혼과 뒤이은 출산, 그리고 영유아의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 변수와 함께 혼인상태 변수, 출산, 자녀 연령 변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실증분석의 기본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는 출산, 자녀 연령 및 자녀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는 기혼과 미혼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한 가설을 간접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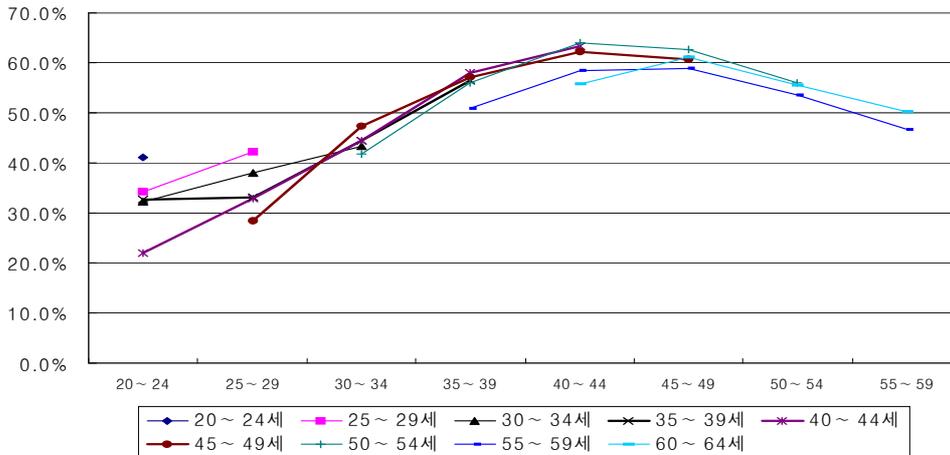
1) 노동시장 복귀 가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복귀의 지연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하는 이론적 탐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기간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트별·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계적 및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3]은 기혼여성의 코호트별로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측정하여 도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코호트들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U자 모양을 가져서 40~44세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40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50대 초반이 되면 좀더 빠르게 참가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넘는 데 비해 30대 초반의 경우 40% 중반에 불과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대부분의 코호트가 연령대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20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코호트라도 30대 초반의 참가율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20대 후반에 집중되었던 출산과 영유아 양육부담이 30대 초반으로도 분산되기 때문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은 미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코호트별·연령대별로 측정한 것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여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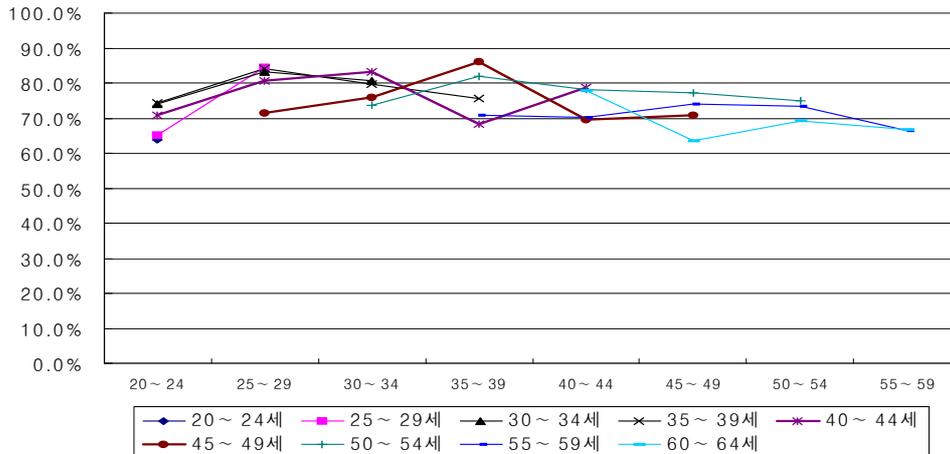
[그림 3] 기혼여성의 코호트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조사되는 가계조사에는 출산, 자녀 연령 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므로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연결할 경우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계조사 이전의 도시가계조사에는 출산 및 자녀 연령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세밀한 분석이 어렵다.

[그림 4] 미혼여성의 코호트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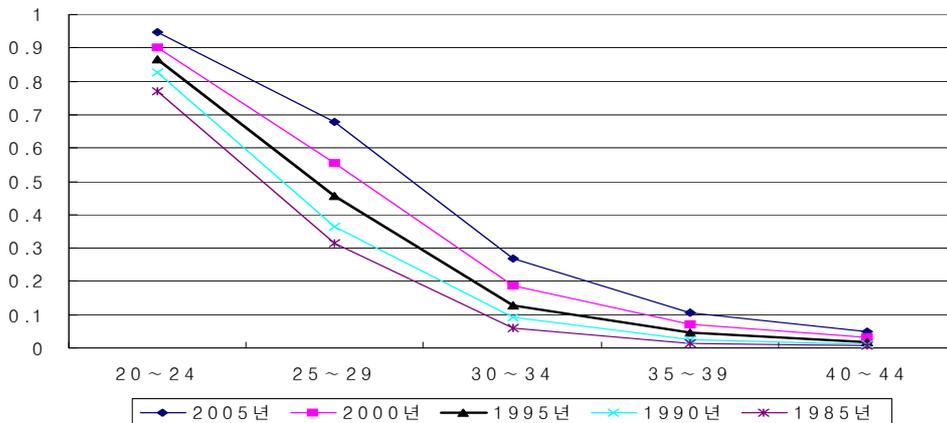
참가율과 대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70%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호트별 차이도 크지 않다.

미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연령대별로 안정적인 수평선인 데 비해 기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44세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 형태를 띤다. 코호트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만이 최근의 코호트와 과거 코호트 사이에 큰 차이점으로 존재한다. 미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혼/미혼 여성을 합한 전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 미혼 비율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연령대별 미혼자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으로부터 최근 20년 사이에 평균 결혼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비율은 3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5~29세의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29세 연령대의 미혼 비율은 1985년 30% 수준에서 2005년에는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20대 후반의 미혼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에 크게 기인했으며 결과적으로 관측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0~34세의 미혼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년 전 10% 이하이던 이 비율이 최근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령대별 미혼 비율과 기혼/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종합하면 전체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20대 후반 여성의 빠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일차적으로 미혼 비율의 빠른 증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령대의 미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수준인

[그림 5] 연도별 미혼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데 비해 기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연령대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20대 후반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부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30~34세 연령대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0대 초반의 경우 기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 중반인 데 비해 미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수준이다. 그런데 미혼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지난 20년 사이 미혼 비율의 증가폭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혼자의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혼 비율의 변동요인이 30~34세 연령대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 연령대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집계변수의 변동분해 방법론에 의해 수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분자가 경제활동참가자수이고 분모가 인구수이다. 혼인 여부로 구분된 집단으로 분해하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혼인상태별 구성비와 혼인상태별 참가율의 곱의 총합이다. X 는 각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 는 혼인상태별 집단의 참가율이며, s 는 혼인상태별 구성비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X_t = \sum_{j=1}^n s_{jt} e_{jt}$$

집계적 변수 X의 변화는 혼인상태별 집단의 참가율(e) 변화에 의한 항과 혼인상태별 구성비(s) 변화에 의한 항 그리고 교차항으로 분해할 수 있다. 변동분해의 식은 다음과 같다.

$$X_{t+1} - X_t = \sum_{j=1}^n s_{jt} (e_{jt+1} - e_{jt}) + \sum_{j=1}^n e_{jt} (s_{jt+1} - s_{jt}) + \sum_{j=1}^n (s_{jt+1} - s_{jt}) (e_{jt+1} - e_{jt})$$

분해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은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중에서 혼인상태별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설명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1에 가까울수록 혼인상태 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설명하는 비중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각 연령대에서 미혼자의 구성 변화가 설명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0세 이상의 경우 미혼자의 비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아져 온 30대 이하의 경우 미혼자의 비율이 설명하는 비중이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초반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미혼 비율의 변화보다는 참가율 변화가 설명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 미혼 비율의 변화가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30대 초반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경제활동참가율이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표 1>의 값을 보면 -5.40 및 -1.52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혼 비율의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두 힘이 상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분해 : 혼인상태 내 참가율 변화의 설명 비중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85~1990	0.66	0.50	0.78	0.94	1.17	0.99	0.99	0.99	0.99	1.00
1990~1995	-0.67	-0.07	1.40	-5.68	0.98	1.00	1.01	1.00	0.99	1.01
1995~2000	1.34	0.27	-5.40	-4.64	1.05	0.98	1.00	1.01	1.01	0.97
2000~2005	0.94	0.17	-1.52	2.06	0.89	1.03	0.96	1.00	1.00	0.9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가족주기와 여성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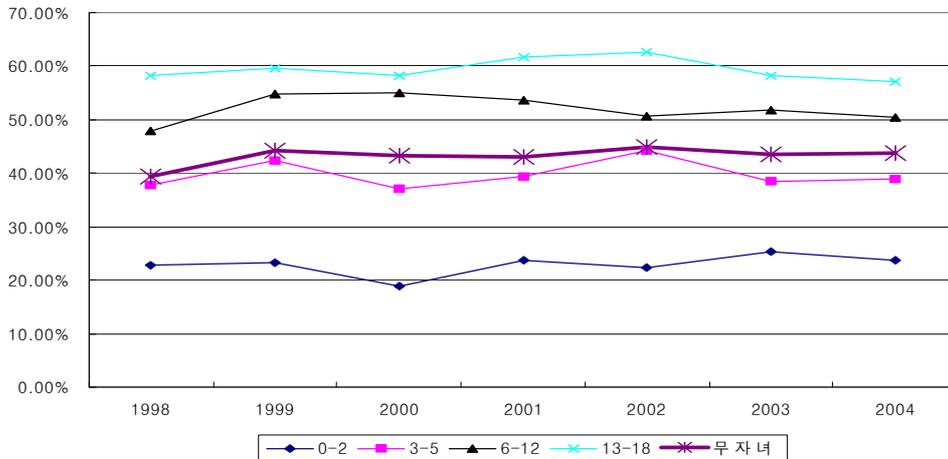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결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결혼 여부에 대한 자료만이 있을 뿐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결혼 여부 이외에 출산 및 자녀 변수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다른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살펴본다.

김우영(2003)은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여성 취업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상태간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경·조유현(2003), 김지경(2003)은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및 신규 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첫 출산이 경제활동상태간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우영(2003)의 경우 1998년 이전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서 외환위기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지경(2003) 등의 연구는 첫 출산에만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을 뿐 결혼, 첫 출산, 둘째 이후의 출산 및 자녀의 성장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 및 영유아의 양육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다.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제3차년도 자료와 제7차년도 자료의 연결패널 자료로서 2001년과 2004년 사이의 변화를 추적한다. 분석방법론은 가족주기적 사건(event)을 전후로 한 취업과 미취업 상태별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취업자였던 미혼여성이 2001~2004년 사이 결혼을 했을 경우 2004년 취업자일 확률과 미취업자일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가족주기는 미혼, 결혼 및 무자녀, 막내자녀가 0~2세인 영아인 경우, 막내자녀가 3~5세 유아인 경우, 초등학교인 경우, 중·고등학교인 경우로 구분하였다.³⁾ 이 글에서는 가족주기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변화를 이행

3) 가족주기에 대해서는 황수경(2003: 26-31), 황수경(2004: 107-118)을 참조할 수 있다. 황수경(2004)에 따르면 가족주기는 제1주기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의 형성단계, 제2주기 첫 아이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시기로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단계, 제3주기 막내자녀가 3살이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 보육단계, 제4주기 막내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이 완료되는 단계, 제5주기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구가 재편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5개 주기를 수정하여 제1주기 이전의 미혼 주기를 설정하고 제3주기를 3~5세의 유아 단계와 만 6세 이후의 초등학교 단계로 세분하였다.

[그림 6] 가족주기별 여성 고용률 추이(1998~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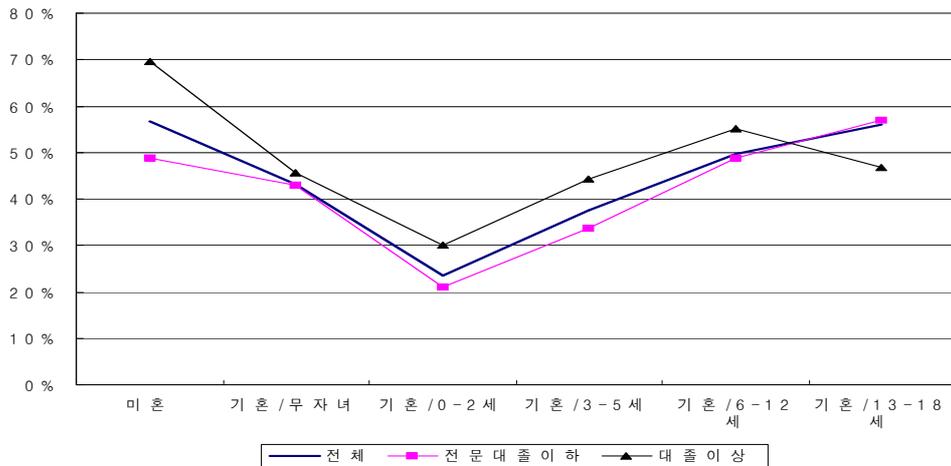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확률을 통해 묘사하는 데 그칠 뿐 이행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행확률의 제시에 앞서 외환위기 이후 가족주기별 여성의 고용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은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주기별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측정하고 이것의 시계열을 도시한 결과이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40% 중반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0~2세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률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3~5세로 높아지면 과거 무자녀인 경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고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더욱 높아져서 50%를 상회하게 되며, 막내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 60% 전후의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림 7]은 200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을 학력별·자녀연령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미혼의 경우 30대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기혼의 경우 여성 가구주이거나 남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정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졸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일 때에 비해 결혼을 한 후에 자녀 출산이 없는 경우 고용률이 더 높아진다. 이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의 경우는 미혼일 때 고용률이 매우 높으며 결혼과 출산을 통해 대폭 고용률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막내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고용률의 변화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고졸 이하의 경우 빠른 속도로 고용률이 증가하는 데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속도가 감소하여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고용률이 떨어진다.

[그림 7] 가족주기에 따른 여성 고용률 변화(2004년)



주: 미혼의 경우 30대 이하로 한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표 2>는 미혼 여성이 3년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경우 애초에 취업한 이와 미취업한 이의 상태변화를 이행확률로 표현한 것이다. 결혼 전에 취업상태였으나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은 56%이다. 이것은 <표 3>에서 보듯이 미혼을 유지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인 20%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점에서 결혼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혼 전 미취업상태였다가 결혼 후 취업을 할 확률은 32% 정도로서 미혼자의 취업확률 49%에 비해 낮다. 결혼은 노동시장으로의 유입확률 또한 낮춘다.

<표 2> 이행확률(미혼 → 기혼)

		2004년	
		미취업(N)	취업(E)
2001년	미취업(N)	68.14%	31.86%
	취업(E)	56.17%	43.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표 3> 이행확률(미혼 → 미혼)

		2004년	
		미취업(N)	취업(E)
2001년	미취업(N)	50.68%	49.32%
	취업(E)	19.65%	80.3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표 4>는 보다 세분된 가족주기적 상태 변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표 2> <표 3>의 이행확률표를 일렬로 표현하여 상태간 이행확률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것이다.

미혼 취업여성이 결혼 이후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은 36%이다. 그런데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경우에는 그 확률이 81%로 크게 높아진다. 결혼보다 자녀 출산이 취업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0~2세는 결혼과 함께 바로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 해당한다. 미혼→0~2세의 경우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19%에 불과하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출산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경우, 즉 무자녀→0~2세의 경우에는 기혼 여성이 출산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48%로서 미혼→0~2세의 경우에 비해 크게 높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출산을 하는 여성은 쉽게 노동시장을 떠나는 반면, 결혼 후에도 직장을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이라는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⁴⁾

0~2세→3~5세의 변화는 3년 사이에 추가로 아이를 낳지 않고 영아자녀가 성장하여 유아가 될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영아 자녀가 있을 때 취업을 유지했던 사람은 자녀가 자라 유아가 되어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90%를 넘는다. 영아 자녀가 있을 때 미취업자였던 사람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유입될 확률은 19% 정도이다.

0~2세→0~2세의 경우는 2세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녀를 낳을 경우를 의미한다. 영아 자녀가 있을 때 미취업이었던 사람은 추가로 자녀를 낳을 경우 계속 미취업에 머무를 확률이 90%가 넘는다. 영아자녀가 있을 때 취업했던 사람이 추가로 자녀를 가짐에 따라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은 31%이다. 이것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 52%에 비하면 떨어지는 수치이다.

3~5세→0~2세의 경우는 3~5세 유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녀를 낳을 경우로서 약간 터울이 있는 자녀 출산을 말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가 취업자가 될 확률은 6%이고, 유아 자녀를 가지면서 취업을 유지했던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취업을 포기

4)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결혼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한 고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미래의 커리어에 대한 안정적 전망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반면 결혼과 함께 출산을 한 고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장 경력으로 인해 미래 경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회비용으로서의 소득도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쉽게 이탈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결혼 직후 출산을 한 고학력 여성의 경우 빠른 출산 자체가 의도된 결정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선별 편익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 가족주기적 상태간 고용상태 이행확률(2001~2004년)

	N→N	N→E	E→N	E→E
미혼→미혼	50.68%	49.32%	19.65%	80.35%
미혼→무자녀	43.13%	56.87%	36.30%	63.70%
미혼→0~2세	83.99%	16.01%	80.91%	19.09%
무자녀→무자녀	88.69%	11.31%	24.96%	75.04%
무자녀→0~2세	84.70%	15.30%	52.38%	47.62%
0~2세→3~5세	80.99%	19.01%	8.27%	91.73%
0~2세→0~2세	93.15%	6.85%	30.97%	69.03%
3~5세→0~2세	94.10%	5.90%	46.14%	53.86%
3~5세→6~12세	69.88%	30.12%	17.96%	82.04%
6~12세→6~12세	69.59%	30.41%	16.02%	83.98%
13~18세→13~18세	82.73%	17.27%	17.16%	82.8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할 확률은 46%로서 0~2세→0~2세의 경우처럼 연속적으로 자녀를 낳는 이의 취업 포기 확률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아이를 낳지 않고 유아 자녀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취업 유지율이 매우 높으며 미취업자가 취업하는 확률도 매우 높다. 취업유지율은 80%를 상회하며 미취업자가 취업할 확률은 30%를 넘는다.

초등학교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 엄마의 경우 노동시장 유입확률이 30%, 취업유지율이 84%이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의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유입확률은 17%, 취업자의 취업유지율은 83%이다. 취업자의 취업유지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신규 취업확률은 대폭 떨어진다.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의해 미취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떨어지는 효과와 자녀교육을 뒷바라지하는 효과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 및 자녀의 출산과 성장이 기혼 여성의 취업/미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과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이행확률을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표 5>는 대졸 여성의 상태이행확률을 보여주며, <표 6>은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의 상태이행확률을 보여준다.⁵⁾

추가 자녀 출산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0~2세→0~2세에서 보듯이 두 학력집단의 취업상태 유지확률을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미취

5) 세분된 학력집단별 이행확률 계산에 따르면 전문대졸은 가족주기에 따른 상태이행확률 측면에서 대졸보다는 고졸과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을 합하여 전문대졸 이하 학력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전문대졸이 갖는 특성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이다.

<표 5> 대졸 이상 여성의 이행확률(2001~2004년)

	N→N	N→E	E→N	E→E
미혼→미혼	36.70%	63.30%	19.27%	80.73%
미혼→무자녀	42.39%	57.61%	29.58%	70.42%
미혼→0~2세	68.09%	31.91%	91.72%	8.28%
무자녀→무자녀	88.70%	11.30%	28.44%	71.56%
무자녀→0~2세	83.20%	16.80%	13.72%	86.28%
0~2세→3~5세	82.78%	17.22%	0.00%	100.00%
0~2세→0~2세	82.17%	17.83%	36.07%	63.93%
3~5세→0~2세	100.00%	.	.	.
3~5세→6~12세	79.01%	20.99%	7.61%	92.39%
6~12세→6~12세	91.40%	8.60%	16.72%	83.28%
13~18세→13~18세	100.00%	0.00%	17.84%	82.1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표 6> 전문대졸 이하 여성의 이행확률(2001~2004년)

	N→N	N→E	E→N	E→E
미혼→미혼	59.15%	40.85%	19.89%	80.11%
미혼→무자녀	45.43%	54.57%	43.10%	56.90%
미혼→0~2세	91.39%	8.61%	75.64%	24.36%
무자녀→무자녀	88.69%	11.31%	24.79%	75.21%
무자녀→0~2세	85.43%	14.57%	64.58%	35.42%
0~2세→3~5세	80.34%	19.66%	14.96%	85.04%
0~2세→0~2세	95.53%	4.47%	26.43%	73.57%
3~5세→0~2세	92.68%	7.32%	46.14%	53.86%
3~5세→6~12세	68.89%	31.11%	20.87%	79.13%
6~12세→6~12세	67.60%	32.40%	15.93%	84.07%
13~18세→13~18세	79.92%	20.08%	17.09%	82.9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업자가 새로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대졸 이상 여성이 전문대졸 이하 여성보다 더 높다.

추가 자녀 출산 없이 0~2세 자녀가 3~5세로 성장할 경우 두 학력집단의 취업상태 유지확률은 고학력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기 자녀를 가지면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고학력자는 3년 후 100% 취업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추가 자녀 출산 없이 막내 자녀가 유아 단계를 지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취업상태 유지 확률은 92%로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79%보다 13%포인트 더 높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성장하면서 대졸 이상 학력자와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노동시장 상태 변화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0% 초반

수준에서 두 집단이 모두 비슷한 데 비해 미취업자가 새로 취업자로 변화할 확률이 고학력집단의 경우 점차 감소하여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로 취업자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에 비해 저학력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림 8]은 학력별로 구분된 두 집단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을 가족주기적 사건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의 경우, 미혼일 경우 전문대졸 이하 여성보다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나 출산의 가족주기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업상태 유지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은 추가 자녀의 출산이 없이 영아에서 유아로 자녀가 성장할 때(0~2세 → 3~5세) 취업상태 유지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80%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저학력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확률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확률 수준으로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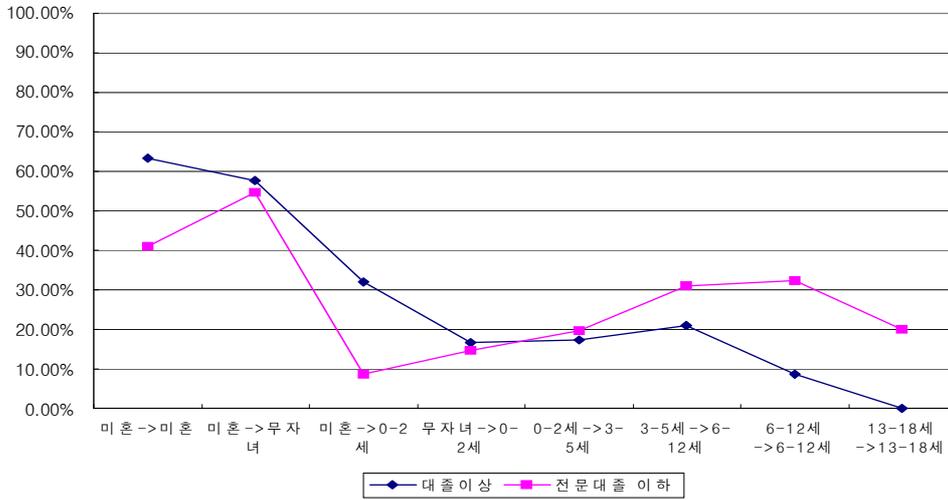
[그림 9]는 학력별로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을 가족주기적 사건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 출산은 미취업자가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낮추며 자녀 양육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20% 미만의 매우 낮은 확률로 미취업자가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으로 성장하면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대졸 이상 학력자는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전문대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 미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를 이용하여 [그림 7]에서 살펴본 가족주기별 여성 고용률의 학력간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출산은 취업상태 유지확률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복귀 확률을 떨어뜨리므로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한다.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가족주기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문대졸 이하 여성에 비해 취업상태 유지확률도 높고 미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확률도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출산으로 인해 고용률은 떨어지지만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한다.

추가 출산 없이 자녀가 성장할 경우 두 집단의 고용률은 상승한다. 그런데 고학력 집단의 고용률은 점점 체감하면서 증가하는 데 비해 저학력 집단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국에는 고용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8]과 [그림 9]를 통해 이러한 고용률의 역전현상이 취업상태 유지확률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입확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 유지확률은 두 학력집단 간에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유입확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계속 하락하는 데 비해서 전문대졸 이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전문대졸 이하 여성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기존의 취업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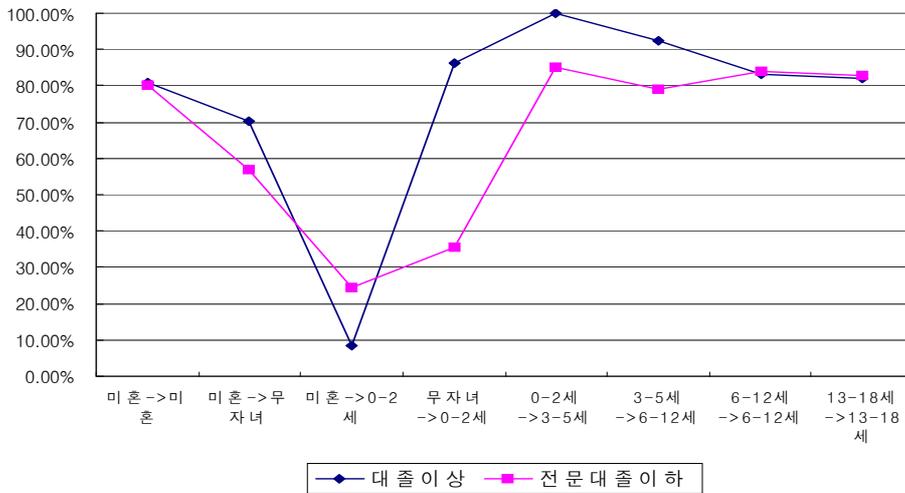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보다는 미취업자가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미취업자의 취업상태 유입확률(2001~2004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그림 9] 취업자의 취업상태 유지확률(2001~2004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IV. 결론

이 글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 이유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정체된 점으로 특징짓고 왜 3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값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2절의 분석에서는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30대 초반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중평균으로 이해할 경우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미혼자 및 기혼자의 비중 변화와 각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80% 전후한 수준에서 지난 2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 모양을 취하면서 20대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근소하나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연령대별 미혼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대 후반의 증가폭이 매우 큰 데 비해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향배는 미혼자의 비율의 변화폭과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 30대 초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여 년간 미혼자의 비율 증가에 의해 상승 압력을 받지만 기혼 여성 및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에 의해 감소 압력을 받아 거의 불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의 분석에서는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부담이 얼마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지 이행확률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확률을 대폭 떨어뜨리며 자녀 양육부담 역시 취업상태 유지확률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혼에 비해 출산이 취업상태 유지확률을 더욱 크게 떨어뜨리며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유입확률도 더 크게 감소시킨다.

자녀가 영유아기인데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3년 후에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80% 이상의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은 여성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의 여성과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영유아의 양육부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머

무를 확률이 높으며 미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확률도 높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미취업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유입확률이 미취업 저학력자의 유입확률에 비해 낮아진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두 집단이 수렴되는 데 비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은 고학력자가 더 하락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해당 자녀의 연령대에 저학력 여성에 비해 더 낮아지게 된다.

이 글에서 이루어진 가족주기별 노동시장 상태간 이행확률에 대한 분석은 확률을 단순 계산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가족주기나 학력 등이 이행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 (1), pp.67~101.
- 김지경·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 (3), pp.181~207.
- 김지경(2004),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 (1), pp.69~79.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4),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한국노동연구원.